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1월 18일 (제97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추수할 영혼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는 많은 수고와 고충이 따른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벌레도 잡고 행여 가뭄이 오면 물을 끌어와서 대야 하고, 비바람이라도 몰아치면 밤을 꼴딱 새면서 지켜내느라 애를 쓴다. 그야말로 농사는 인내와 노력의 싸움이다. 옛 어른들이 쌀을 얻으려면 88번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농부이신 우리 어머니는 그 수고를 알기에 밥 한 톨도 하수구에 내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농부의 수고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늘의 도움이 없고서야 어찌 결실을 맺을까. 그래서 필히 은혜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다.

영혼의 추수도 똑같다. 한 영혼을 추수하기까지의 수고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 땅은 속이지 않지만, 사람 마음은 조석변하기 때문이다. 먼저 그들의 마음에 씨를 심어 싹이 나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행여 시험 들세라, 행여 다시 세상으로 나갈세라 전전긍긍하고, 괜히 쓸개 없는 사람인양 행동하기도 한다. 하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율법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아래 있는 자처럼 쫓대 없이 여러 모양이 되었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영혼이니 얼마나 귀할까. 전도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가 밑바탕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28, 29일에 있을 은사집회를 위해 작정기도중이다. 기도와 우리의 수고를 더할 때 집회 장소인 핸드볼경기장이 차고 넘치며, 그곳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이다. 늘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한 마음이였다면,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번 집회를 기회로 삼자. 이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참석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것이다. 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10:15).

알곡 있는 곳에 참새가 온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저녁예배에 단에 오르셔서 말세에 미혹으로 이끄는 악한 마귀의 체계에 성도들이 속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계하셨다.

“지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전파하는 모 교회단체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온통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말세라며 집 팔고 땅 팔아 교회에 갖다 바치는 일들로 인해 가정들이 파괴되는 등 엄청난 사회문제로 방송 뉴스에까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목사들이 지식이 없어 당한 결과입니다. 나는 그 때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임을 천명하고 절대 그 날짜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아모서서 3장 7절에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언제 오는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그분에게 속한 권한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언제 오는지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를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또 ‘십사만 사천’이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두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계시록에 분명히 적시되어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즉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각 12,200씩 총 144,000을 말합니다. 또 14장 1절 이하에도 나오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 하며 지금 교회에서 나와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 받는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에 왜 속아 넘어가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십사만 사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 만약 그게 그토록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지 않으셨겠냐이 말입니다. 제발 속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을 망각하니 이런 속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는 말씀을 들어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하신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너무나 단순한 법을 몰랐던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공관복음에서 공히 하나님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말세의 비밀을 자세히 설명하신 후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하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에 썼고 그와 함께 십 사만 사천이 썼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리고 4절, 5절에 뭐라 기록하셨나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를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 자손 중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무슨 비유니 상징이니 하며 미혹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십사만 사천’에 들지 못

수에 놀아나는 겁니다. 단언컨대 말세의 비밀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며 성도의 말은 바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처음 배운 확신에서 제발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리 알곡이라도 참새에 쪼이는 순간 쪽정이가 될 뿐이다. 말세의 미혹을 조심하고 더욱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때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12~13)

야성을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말라



서커스단의 호랑이는 줄에 묶여서 이리 저리 끌려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이 주는 우유를 받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호랑이의 본성인 야성(野性)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는 맹수가 아닌 애완동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닭에게서 부화된 독수리는 닭을 어미로 알고 땅에 떨어진 모이나 쪼아대며 삽니다.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건만 닭장 안에서 푸닥거리며 주인이 주는 먹이로 살게 됩니다. 기도원에서 기르던 비둘기는 풀어놓아도 기도원 근처를 못 떠나고 사람이 주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성(野性)이란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격’을 말합니다. 서커스나 하고 있는 코끼리, 밧줄에 묶여 재롱떠는 호랑이, 닭 꿈무늬나 쫓아다니는 독수리, 기도원의 비둘기..., 모두 본성과 야성을 잃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 본성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여 옛집 근처에서 배회하겠지만, 배고픈 호랑이가 작은 토끼라도 한번 잡아먹게 되면 다음에는 사슴에 도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짐승도 잡게 되며 야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도 높은 벼랑에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날개를 못 펴서 그대로 곤두박질하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점차 날개를 펴서 하늘로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렇다면 야성을 잃은 교회와 본성을 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해볼까요? 교회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는데요. 본질을 잃고 세속화되고 문화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직 영혼 구원에 매진해야 하건만 교회가 행사 위주로 가고 있으니 이런 폐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선전들은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되레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왜요? 야성, 본질,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인일 뿐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가져야 할 야성을 잃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이

되어버린 호랑이처럼 말입니다. 천로역정에서 존 번연은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마취국’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마취되고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서커스단의 호랑이가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듯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즐기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지성인들의 삶이라 여기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전술인데 말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그리스도인

들이 능력을 갖추려면 야성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해서는 호랑이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호랑이가 점차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신이 숲 속의 왕자라는 걸 깨닫게 되듯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권세를 지니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2~13). 자신의

정체성, 신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8:15~16)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따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정상아닙니다. 호랑이가 가느 줄에 묶여 끌려 다니는 것이 정상이지 아닌 것

처럼. 예수님이 받은 성령이나 믿음의 선전들이 받은 성령이나 동일함으로 우리도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

어디 이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일도 하게 됩니다(요14:12).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하겠느냐’고 합니다. 하긴 귀신만 쫓아도 잘못되었다고 하니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닭장에서 살던 독수리가 언덕에서 날아보겠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이요,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기에 그렇습니다(호4:6).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이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의 집사들은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기이한 일을 행했는데, 우리는 귀신 한 마리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은 없다

여러분, 야성을 잃었다는 의미는 목적과 꿈, 길이나 사명을 잃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과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누가, 어떤 것이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롬8:35). 저 또한 목회 34년 동안 한 번도 목적을 상실하거나 받은 바 사명을 부도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나빠도 굴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야성입니다.

여러분, 조련사에게 배운 호랑이는 야성을 잃습니다. 조련사는 호랑이의 야성을 없애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 지식으로 우리를 교육하려고 합니다. 야성을 잃어야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면 우리가 비록 미련하고 약한 자이지만 지혜로운 자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호랑이에게 교육을 받으면 호랑이와 같은 기질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의 신분을 알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호랑이가 숲 속을 지배하고 독수리가 하늘을 정복하듯 우리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주님은 꼭 오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예수의 재림! 이것은 이 우주가 창조된 이래 모든 만물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최후의 절정 중 하나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승천하신 그 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다린다. 그 분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분을 맞을 준비를 서두른다.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하여 예언을 해왔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는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에 아무도 알 수 없고 천사도 알 수 없다. 간혹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때와 장소를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은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못박으신 예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요, 그런 사람을 좇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밤, 오늘밤하며 365일을 속고 실망하더라도, 또 몇 십 년을 그렇게 확신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보낸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매일같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늙어서 죽게 되면 또 그 약속이 후손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다

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리 길어도 사십일을 넘지 않아서 주님이 오실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십일이 지나고 사십년이 지나서 그들의 일생을 마칠 때가 되도록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것처럼 자신들의 믿음이 맞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더욱 굳게 하였다.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음, 흘리신 피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기다림은 더욱 간절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지나가자 다음세대에 또 그 기다림을 물려주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채 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모습인 것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벧후3:9~10). 신기류 목사

어떤 마음씨 좋은 백화점 주인이 고아원 아이들을 초대해서 장난감코너에 풀어놓고, 고르는 선물을 모두 주겠으니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다. 아이들은 진짜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신나서 장난감을 정신없이 집었다. 장난감은 차고 넘쳤지만 같은 장난감을 잡은 아이들은 서로 싸우기도 했고, 다른 아이가 잡은 장난감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아이도 있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 가만히 있었다. 백화점 주인이 "너는 왜 가만히 있니?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잡기만 하면 줄게." 라고 말하였다. 아이는 정말이냐고 묻고는 백화점 주인의 다리를 잡았다. "저는 아저씨를 원해요." 이후 백화점 주인은 그 아이를 입양했고, 아이는 나중에 백화점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장난감들을 가지고 싶

은 아이들처럼 "이것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시고, 그것도 들어주세요." 한다. 그러나 장난감이란 가지고 놀다 보면 질리게 되고, 성장하면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백화점 주인을 택한 아이처럼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주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인생,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 안에 금은도 있고, 지식과 지혜도 있으며, 하나님 안에 건강과 행복까지 있기 때문이다. 장난감을 가득 가슴에 안을 것인가, 장난감 회사의 주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 당신에게 줄 많은 것을 가슴에 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김성일 성도 cre8tor@naver.com



:: 진리의 학당 ::

천사의 타락 (이사야 14:12~15)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 보좌를 받으신 이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인자되려 하신 뜻을 품으셨으니, 전능자의 모든 뜻과 역사가 후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견고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아들 없이는 한 가지도 창조한 일이 없고(요1:3), 아들도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니(요17:4~5) 하늘과 땅,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음부는 인자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의 경로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1:15~17).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들어오시면 그를 영화롭게 모실 천사들 중(히1:6) 한 천사가 이 틈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불의에 가담한 그 휘하의 천사들도 함께 타락했으니(계12:9) 본래는 광

명한 천사라 새벽별처럼 아름답고 주의 사랑을 받던 자이다(겔28:14~15). 천사들에게는 각각 자기의 직분이 있다. 그러나 교만한 천사는 자기의 직분을 떠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다. 이것이 타락이며 범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천사를 음부, 곧 구덩이 뎌 밑에 가두셨으니 교만한 천사는 흑암에 최초로 갇힌 자가 되었다(유1:6, 벧후2:4, 창1:2). 이렇게 타락한 천사는 ①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②피조물인 자신을 신격화하여 ③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④하나님의 안식에 상처를 낸 죄수로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으니, 후일 보좌상속을 위해 자기를 낮추어 인자로 오실 이에 의해 심판을 받고(요16:11), 흑암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 종결될 때 마귀와 그 사자들과 음부도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마25:41, 계20:10, 14). 주님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명령하셨으니(요6:52~58), 곧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지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특성은 겸손이다. 그리스도의 특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롬8:9). 겸

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인자의 특성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2:16).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요일3:8).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오르고 구름 위에 보좌를 높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는 교만이 사탄의 정신이며 타락한 자의 마음이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게 했고(요13:2) 베드로에게도 스승의 길을 막아서도록 사주했다(마16:23, 벧전5:6~9). 우주 안에는 의의 천사가 있고 타락하여 감금된 천사들이 있다. 의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시키심을 따라 음부에도 왕래하지만(마18:10, 시103:19~22) 흑암에 갇힌 천사는 영원한 결박으로 묶여 있으니 음부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유6, 창1:2). 우리는 음부에서 태어났으므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의의 천사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현현한 것은 천사들이다(행2:1~4, 히

1:7). 천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히1:14). 성령 충만이란 의의 천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상황이다. 영력, 곧 영혼에 힘이 없으면 세상 신들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은 먼저 영혼에 임하고 영혼에 임한 능력이 육체에 치유로, 부유로, 행통으로 나타난다(요삼2). 영혼에 부여된 생명과 진리가 세상 신들을 제압한다(눅10:19~20). 성령께 순종해야 영광과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 나라와 그 이름의 권세와 존귀와 능력이 영원하시다. 천사라도 처소를 떠나고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영원하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요 인류를 타락시킨 원수요 흑암의 지배자요 거짓의 아비이니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만 있다. 그에게 속한 영혼, 곧 귀신들도 이와 같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불의에는 보응하시되 의에 대하여는 한없는 은혜로 보상하신다. 박덕규 목사

시냇물의 노래

서양 속담에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던 우리 삶에 갑자기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결국 이러한 방해물들 덕분에 우리 삶이 노래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 신실한 장로님이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중 한 친구가 몇 십 년이 지나도 믿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로님을 비웃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이 암 수술 후 병실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그 친구가 병실을 찾아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화더니 지금 자네 꼴 좀 보게!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나?” 이에 장로님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야. 내가 건강할 때도 그분께서는 나

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어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자네도 이제 그만 예수를 믿어야 하네!”

병든 자신의 처지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줄 알았던 친구는 이런 장로님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결국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옥에 갇혀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히려 자신을 염려할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라며(골4:8)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 잘난 학문과 명예를 버리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모진 삶을 견뎌내는 바울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짜라며 핍박하던 예수가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구이언(一口二言)으로 신념을 버린 사람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

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속적 가치가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똥’같이 여겨질 만큼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세상이 감동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부딪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며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체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에 부서지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빠진 욕에게 위로는커녕 비난을 일삼던 그의 세 친구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삶에 예수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독서의 힘

나는 태반이 어머니 몸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탯줄이 끊어져 어머니는 급히 읍내 의원으로 옮겨지셨고, 뼈에 가죽만 앙상한 미숙아 모습에 이웃들은 죽었나 확인하러 오시곤 했단다.

잔병치레와 허약했던 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기초교육의 시기도 놓쳐버렸다. 오로지 낙이라곤 각각의 교실에 배치된 전집이나 위인전을 읽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나의 독서습관은 시작되었다. 특히 중 2때 한글 단어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그 어렵고 두꺼운 ‘죄와 벌’을 읽는 중에 생긴 인내심과 성취감은 초신자 시절 성경읽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안다. 이해력이 증진되며, 자신감을 심어주며, 상상력이 발동되어 생각의 삶이 차오르게 만든다. 책 대여점, 도서관, 월급타면 썬독보다 서점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의 책이 스프 뿌진 라면처럼 싱거워지기 시작했고, 성경을 접하면서 세상 책의 근원이 성경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일수록 하나같이 책벌레였고, 윈스턴 처칠(고등학교까지 꼴찌), 철강 왕 카네기, 케네디가(家), 박지원, 이율곡...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독서의 신이 되어보면 지혜가 쌓이고 평범했던 인생이 언젠가 극적인 역전도,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독서의 힘이다.

학력, 재력, 문벌, 미모도 갖추지 못한 나는 독서습관을 통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장식하는 주일신문 명예의 전당에 작은 이름을 올렸다. 독서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부지런히 읽고 배워보자. 배움이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추고 하루는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한 연속의 나날이 될 것이다. 등불이 되는 책은 평생 반복해서 읽고 다방면의 독서를 통해 어느덧 5부, 7부 능선에 도착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깊이’의 뜻도 글썽이의 고뇌까지 훑쳐볼 수 있을 것이다.

추성숙 집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약식동원(藥食同源), 양파(洋蔥)편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어도, 고기 집에서 삼겹살을 먹어도 쉽게 접하는 양파, 요즘은 껍질째 끓여 먹는 것이 혈압과 혈당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맛도 먹을 만합니다. 오늘은 양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성미가 맵고, 달며, 따뜻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주로 폐(肺)의 경락으로 가며, 효능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잘 시켜주고, 속이 울렁거림을 가라앉혀주고 해독 및 살충효과가 있습니다. 가볍게 찜도 내어 감기에 도움이 되고 소변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양파의 역사는 4,0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조선 말엽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채소에 비해 당질이 많고 단맛이 강하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혈

압, 혈당을 내려줍니다. 양파의 매운맛이 식욕을 자극시켜준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양파껍질을 매일 5~10g씩 물에 부어 끓인 후에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도움이 되며, 고지혈에는 하루 60g정도를 볶아서 먹는다고 고서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껍결핵이나 기침에 돼지고기 200g에 볶은 양파 4개를 함께 끓여 먹으며, 진한 가래 기침이 있을 때 양파를 생으로나 익혀서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복용량은 30~120g이며, 주기적으로 먹기에는 즙을 내어서 먹는 것이 편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열이 많을 때나, 가려움이 심한 피부질환이 있을 때, 눈이 충혈될 때에는 복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양파의 따뜻한 성질이 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이

많을 때는 열을 내려주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나 약초들이 도움이 됩니다. 치자물로 노랗게 된 단무지는, 치자의 차가운 성질로 인해서 몸의 열을 낮추기 때문에, 중국집의 단무지와 양파가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가 되며, 참지혜롭게도 각자의 체질에 맞게 먹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밑반찬을 누가 생각해 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몸의 병이 차가워서 생겼는지 더워서 생겼는지에 따라 차가우면 따뜻한 약으로, 더워서 생긴 병은 차가운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건강하고, 우리 몸의 균형이 맞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국집에서 양파를 먹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음미하며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Dr. 설재현 집사



이초석 목사 은사집회

2018. 11. 28~29 저녁 8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문의 02. 533. 9191